27일 시립교향악단 제412회 정기연주회 'SAGA'

시벨리우스와 차이콥스키, 두 거장의 강렬한 서사와 거대한 교향적 울림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섬세한 긴장감에서 압도적 운명으로 마무리되는 이번 공연은 서로 다른 음악적 색채를 지닌 두 작품이 빚어내는 강렬한 서사적 여정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립교향악단

시벨리우스·차이콥스키…'강렬한 서사와 운명의 울림'

헤리티지 시리즈…지휘 이병욱·바이올리니스트 박규민 협연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차이콥스키 교향곡 두 작품 구성


바이올리니스트 박규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교향악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이병욱)은 오는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412회 정기연주회 'SAGA'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교향악단의 대표 브랜드 '헤리티지 시리즈'의 열한 번째 무대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규민이 협연자로 나서 더욱 기대를 모은다.

시벨리우스와 차이콥스키의 대표작으로 구성된 정통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전반부 바이올리니스트 박규민이 협연하는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op.47로 문을 연다. 서정적이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선율과 고난도 독주 기교가 돋보이는 이 작품은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가 빚어내는 극적인 대비를 들려준다.

후반부에서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4번 F단조 op.36을 연주한다. 운명을 상징하는 강렬한 도입부를 시작으로 서정과 다채로운 관현악적 색채가 교차하는 이 작품은 인간의 내면과 운명을 둘러싼 감정의 흐름을 교향적 스케일로 그려낸다.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규민은 2012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해 이화경향콩쿠르 1위, 신한음악상을 수상했다. 2013년 토마스&에본 쿠퍼 국제콩쿠르 우승으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2019년 막스 로스탈 국제콩쿠르 2위 및 청중상 수상으로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에서 데뷔했다. 2024년 제12회 요제프 요아힘 국제바이올린콩쿠르 입상자로 선정됐다. NDR 방송교향악단, 슈투트가르트 체임버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고 크론베르크 아카데미, 라비니아 페스티벌 등에 초청받았으며, 현재 슈타츠카펠레 베를린의 종신 부악장으로 활동 중이다.

섬세한 독주에서 장대한 교향악으로 이어지는 이번 무대는, 이병욱 예술감독의 리더십 아래 시벨리우스와 차이콥스키가 남긴 강렬한 서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완성해낼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교향악단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시벨리우스와 차이콥스키로 이어지는 낭만주의 음악의 강렬한 서사와 정서를 조명하는 무대"라며 "독주의 긴장감과 장대한 교향적 울림이 빚어내는 음악적 여정을 통해 시민들과 깊은 감동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연주회 입장권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다. 예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예술의전당 누리집과 예스24를 통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교향악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복 기자

장애예술인 석창우, 키아프 서울 협력 특별전 참여

수묵 크로키-미디어아트 결합

12월19일까지 '먹의 숨결' 선봬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예술계 원로 작가 석창우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는 대형 미디어아트 특별전 'OUTfront : Kiaf × MEDIA ART SEOUL'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키아프 서울(Kiaf SEOUL), 광화문 자유표시구역이 협력해 개최하는 이번 특별전은 광화문 일대를 비롯한 서울 도심 8개 장소(아뜰리에 노들, 아뜰리에 광화, 해치마당 미디어월, KT빌딩, 세광빌딩, 코리아나호텔, 동아일보사, 일민미술관)에서 동시 송출되며, 광화문 광장을 거대한 야외 전시장으로 탈바꿈한다. 〈사진〉

이번 전시에서 장애예술인 석창우는 박제성, 한승구, 전혜주 작가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산업재해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를 활용해 찰나의 움직임을 담아내는 수묵 크로키 작업을 전개하는 석 작가는 특유의 역동적인 선과 삶의 서사가 녹아든 작품을 미디어아트와 접목한 '먹의 숨결'을 선보인다. 작품은 오는 12월19일까지 서울 해치마당 미디어월에서 상영된다. /오복 기자

자극이 사라진 뒤에도 마주하는 '잔상'

ACC, 22일까지 '지역 예비예술가 발굴전 Ⅱ' 세 번째 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2026 ACC-지역 예비예술가 발굴전 Ⅱ'의 마지막 전시 '잔상: Afterimage of Design'을 오는 22일까지 문화정보원 대나무정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CC는 지난 4-5월 광주예술중·고등학교와 함께 '2026 ACC-지역 예비예술가 발굴전 Ⅰ'을 선보인 데 이어 지난 9월부터는 지역대학과 함께 '2026 ACC-지역 예비예술가 발굴전Ⅱ'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조선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도자디자인전공 학생들의 'Ending Credit: 마침표와 쉼표',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학생들의 '메아리: Echo of Youth'에 이은 세 번째 전시다.

전시 제목인 '잔상'은 자극이 사라진 뒤에도 감각에 남는 이미지를 뜻한다. 빠르게 소비되는 이미지가 넘쳐나는 오늘날 디자인이 시각적 결과물에 그치지 않고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시에는 호남대학교 시각융합디자인학과 학생 19명이 참여해 브랜딩, 그래픽, 캐릭터, 공예, 영상 등 디자인 분야의 작품 30여점을 소개한다. 작품들은 학생들이 전공 과정에서 습득한 역량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발견한 소재나 경험을 이미지로 재해석해 풀어냈다. /오복 기자


김연승 作 '몽쿠리'


강태희 作 '헤일로'

황동수 교수가 말하는 블루카본·해양생태계 역할

국립광주과학관, 14일 '필 사이언스 강연'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14일 오후 2시 본관 1층 상상홀에서 '제43회 필 사이언스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황동수 교수를 초청해 '바다에서 탄소가 다시 태어난다고?-푸른 바다 속 우리 미래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한다.

강연에서는 바다가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과정과 해양 생태계가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다. 특히 블루카본(해양 탄소흡수원)의 개념과 활용 가능성을 소개하고, 바다와 탄소의 관계를 과학적 원리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볼 예정이다.

황동수 교수는 생체모사 재료 및 환경공학 분야를 연구해 왔으며, 2016년 국가과학기술 100선 선정,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공 수상, 2024년 CES Award 수상 등의 경력이 있다.

행사를 기획한 김정원 과학문화실 연구원은 "이번 강연은 바다가 단순한 휴양 공간을 넘어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블루카본 생태계로의 중요한 역할을 조명한다"며 "바다와 기후변화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미래 환경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복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사 944-0993

지방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